

불임클리닉

불임클리닉

황경진 그레이스병원 원장

불임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할 때는 임신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난자를 많이 얻어내는 과배란 약제를 쓰게 된다. 그러나 약제를 아무리 써도 난자가 아예 처음부터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배란을 하기 전에 환자가 어느 정도 약에 반응을 잘 하여 결과가 좋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불임치료를 언제까지, 또 어느 선까지 해야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환자와 함께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전혀 상태가 좋지 않다면 너무 무리해서,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과배란 유도나 시험관 아기 시술, 기타 다른 보조생식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 과배란 약제는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주사를 매일 혹은 며칠 간격으로 맞아야 해 환자가 갖는 정신적인 부담이 크다. 과배란 약제를 써도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주의하여 어떻게 해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 특히 40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이가 많은 환자인 경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 임신 가능성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만 심어주면 나중에 환자에게 더 깊은 실망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으면

난자의 질이 나빠져 임신 자체도 잘 안 되지만 임신이 되었다고 해도 유산이 잘 되므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월경주기 초기에 난소의 보유 능력을 알아보는 호르몬 검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즉 월경 시작 후 3일째 난포자극호르몬(FSH)이 20mIU/ml 이하이거나 에스트라디올호르몬(E2)이 50pg/ml 이하일 때는 벌써 난소의 상태가 폐경기 상태처럼 노화됐음을 의미한다.

때로 폐경기가 안 된 젊은 여성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보조생식술을 하기 전에 이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과배란 약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난자가 별로 자라지 않는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는 특히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 환자로 하여금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관 아기 시술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실제적인 난소 기능 검사에서 반응이 나쁠 때

단순히 호르몬 검사만으로 난소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보다 정확하게는 클로미펜 약제를 사용하여 난소의 실제 기능검사를 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클로미펜 부하검사로 클로미펜을 5일간 쓰기 전후로 난포자극호르몬(FSH)을 검사하면 난소 반응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4.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증이 있는 경우

질초음파상 난소에 두꺼운 피질이 형성되어 있고, 2~8mm의 작은 난포들이 박혀 있으면 다낭성난소증이 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낭성난소증이 있으면 과배란 유도 시 약제 용량을 조절하는데 매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웬만한 용량에는 끄덕하지 않다가 조금만 양을 늘리면 과자극 반응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5. 월경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경우

월경주기가 짧다는 것은 난소 기능의 저하로 인해 증가된 난포자극호르몬(FSH)에 의해 난포가 성장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난포기(follicular phase)가 짧아진 결과이다. 따라서 난자의 질이 떨어져 임신이 잘 안 되고,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㉞